

유한킴벌리, 김천공장에 첨단 티슈설비 확충

430억 투입... 2023년 본격 가동
원단 생산능력 연간 3.6만t 증가

유한킴벌리가 첨단 티슈 설비 확충을 위해 430억원을 투자한다.

신규 설비로 화장지 원단 생산능력이 연간 3만6000톤(t) 증가해 총 20만t까지 늘어나게 된다.

15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티슈 신규 설비는 경북 김천공장에 설치해 오는 2023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유한킴벌리는 최근 10년간 씬테크 코어 기저귀, 생분해성 생리대, 종이 물티슈, 요실금 언더웨어 등의 신기술 및 설비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해왔다. 이번 투자는 단일 설비투자로는 5년내 가장 큰 규모다.

유한킴벌리는 이번 첨단 티슈 설비 확충을 통해 그동안 티슈 원단 부족



유한킴벌리는 지난 14일 경상북도, 김천시와 김천공장 첨단 티슈설비 증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김충섭 김천시시장, 이우청 김천시의회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을 겪어왔던 국내 생활용품업계의 어려움이 모두 해소되고, 일부 수입 대체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투자로 유한킴벌리의 티슈 원단 공급 능력은 기존 16만4000t에서 22% 이상 증가하게 되며 티슈 사업에서의 새로운 혁신제품 개발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로운 설비가 들어설 유한킴벌리 김천공장은 세계적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사업장으로 스마트매뉴팩처링을 통해 제품 품질과 공정을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미용티슈를 비롯해 화장지, 키친타월 등의 가정용품과 B2B 제품, 부직포, 마스크 필터 소재 등을 생산·공

급해 국내 생활용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유한킴벌리와 경상북도, 김천시는 지난 14일 유한킴벌리 김천공장에서 김충섭 김천시시장,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진재승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첨단 티슈설비 증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도 가졌다.

김천시 김충섭 시장은 “지역사회와의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과 발전의 롤 모델을 구축해 온 유한킴벌리가 이번 투자로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 뻗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상북도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코로나 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경영성과와 함께 증액투자를 이끌어 낸 유한킴벌리 김천공장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담양군, 대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충전 소비쿠폰 사업 업무협약.

담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충전 소비쿠폰’ 협약

담양군 대전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정현)와 프린스제과(대표 박현국) 간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특화사업인 ‘행복충전 소비쿠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제성현 면장과 이정현 협의체위원장, 박현국 프린스제과 대표가 참석해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의체에서는 쿠폰을 제작해 지급하고, 프린스제과에서는 빵, 케이크, 빙수 등의 품목을 10% 할인해 판매하게 된다.

제성현 대전면장은 “지역의 이웃을 돕기 위해 마음을 써주신 프린스제과와 협의체에 감사의 전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전남)=최영성 기자 dudtkd234@

메타버스서 ‘기가마을 환영회’ 영암군 ‘6주 살기’ 프로젝트

청년들 귀촌 가능성 실험

영암군과 영암청년창업물에 입주해 있는 문화창작소(대표 김정관)가 ‘청년 6주 살기’ 프로젝트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기가마을 입주환영회’ 행사를 메타버스(가상의 공간)에서 진행했다.

‘영암 월출산의 기운이 넘쳐나는 마을, 지친 청년들이 기운을 받아가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프로젝트 명을 ‘기가마을’이라 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가 아니어도 인터넷만 되는 곳이면 어디든 자기 일을 하며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디지털-노마드(유목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의미도 ‘기가(Giga)’라는 단어에 담고 있다.

이렇게 모인 청년들이 영암으로 와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귀촌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도전을 통해 귀촌 가능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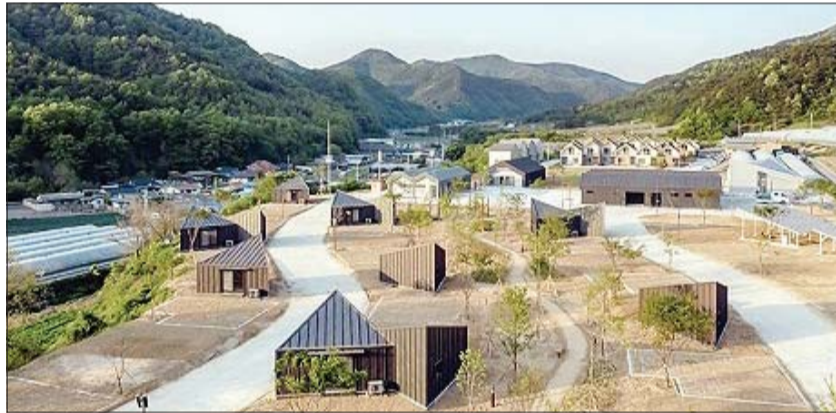
실험해 본다.

올해에는 2회차의 6주 살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1회차는 도포면 황금들 애센터에서 운영되고, 2회차는 10월 즈음 모정마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1회차에 7명의 다양한 개성을 가진 청년들이 각자의 포트폴리오와 다짐을 담은 영상을 담아 지원하여 입주자격을 얻어 선정되었다.

이렇게 모인 청년들이 처음 인사를 나누는 곳은 메타버스(가상의 공간)이었다. 실제 영암군 소재에 있는 전통 한옥펜션의 모습을 그대로 가상공간으로 옮겨와 마당에 무대를 세우고, 파티장을 꾸며놓았다.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가상공간에서 처음 만나 자신이 꾸민 아바타를 통해 서로 인사도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은 후, 설치된 무대로 한 명씩 올라가 자신의 소개를 하는 시간도 가지며 잊을 수 없는 첫 만남을 가졌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한 2021년 대한민국국토대전 공모전 ‘경북 의성고운마을 모델’.

농어촌공 ‘의성 고운마을’ 국토대전 수상

귀농귀촌 수요 바탕 체류형 마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1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 ‘경북 의성 고운마을’을 출품해 대한민국·도시계획학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북 의성 고운마을은 귀농귀촌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체류형 농촌마을 모델로서 건축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상적 농촌마을을 구현한 사례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고운마을은 아름답고 창의적인 경관을 조성하여 농촌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주민과 공공부문 협업을

통해 우수한 디자인의 주거단지를 조성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2016년 농식품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지구로 선정되면서 의성군에서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일괄 수탁해 추진했다.

단지 내에는 체류형 농장 25세대, 커뮤니티 시설 3개동, 캠핑 방갈로 15개소, 사이트 25개소 및 야외잔디마당이 조성됐으며 총 112억원(국비 56억, 군비 56억)의 예산이 투입됐다.

2018년 시설준공 이후 현재는 고운마을 협동조합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8월부터 본격 운영한 캠핑장에는 현재까지 3천여 명이 방문했다. /경북=김태수 기자 ts7080@

울진왕피천공원에서 17일 ‘TFC 드림 7’

국내 최고의 메이저 종합격투기 대회인 ‘TFC 드림 7’이 군단위 최초로 울진왕피천공원 공연장에서 오는 17일 펼쳐진다.

국내 최고 종합격투기 단체인 TFC (Top Fighting Championship)가 주최하고, 울진군과 한울원자력본부가 공동 후원하며, 26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승부를 겨룰 예정이다.

경기는 종합격투, 단판승부, 3라운드(5분/1라운드) 방식이고, 세계 최고 종합격투기 대회인 UFC와 동일한 무대 사용과 규칙을 적용해 진행된다.

특히 울진군은 종합격투기 선수 및 관계자 전원 대회일 기준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검사 음성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불필요한 인원동원 최소화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지역 내 코로나 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사회적거리두기 좌석배치에 따른 500명 미만 선착순 입장이다.

관람 원하는 군민은 입장 시 울진군 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열검사와 명부 작성 후 입장할 수 있으며, 외지인은 코로나19 PCR검사 음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울진(경북)=이정학 기자 okgood6798@

‘영암 쌍무덤’ 국가사적 승격 추진

전남문화재연구소, 오늘 학술대회

전라남도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가 영산강유역마한문화권 최고 수장층의 무덤이 확인된 영암 내동리 쌍무덤의 국가사적 승격을 추진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16일(금) 10시에 영암 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는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영산강유역마한문화권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마한역사문화권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마한문화권 내에서 영암의 위상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전국 각지의 마한사회 연구자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박순발 충남대학교 교수(한국고고학회 회장)의 특별강연과 이범기(전남문화재연구소), 서현주(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낙중(전북대학교), 허진아(전남대학교), 김승근(고대문화재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전라남도, 외국인 대상 주민도정 모니터링단 위촉

전라남도는 외국인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 개선을 위해 제3기 외국인 주민도정 모니터링단 20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3기 모니터링단은 공개 모집과 시군 추천을 거쳐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몽골,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등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도민과 외국인 주민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외국인 주민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활발한 모니터링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주민 무료 법률상담, 외국인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등 전남의 외국인 지원 정책을 홍보하고, 도내 외국인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한국문화가치대상’서 청송군, 3년연속 수상

청송군이 ‘제3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3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제1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관광문화진흥분야 우수상 수상했고, 제2회는 문화정책 MVP상 수상, 제3회는 우수상을 수상해 3년 연속 수상했다.

한국문화가치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광·예술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문화정책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한국의 문화가치를 향상시키고자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2020년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문화분야 공약사업 및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문화정책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평가단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총 31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청송(경북)=이정학 기자